

청소년 진로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_희망제작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최호진 | 시민사업팀 선임연구원 (hjjw75@makehope.org)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heyjayzo@makehope.org)

□ 요약

-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내-일상상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1단계: 상상학교를 진행하였고, 2·3단계: 재능탐색워크숍·내-일찾기 프로젝트를 7~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와 내일을 생각하며, 받기만 해왔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삶'을 상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완주 및 전주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힘을 빌린다. 본 법은 “진로는 곧 진학”이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는 먼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파악하기 위해 <상상학교>에서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행복'(43.8%)이며,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꼽은 것은 '노력'(40.4%)이다. 두 질문에서 '돈'은 10% 정도로 3위를 차지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들은 돈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안정성'(50.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부모님, 선생님 등의 어른들 또는 환경적 제약보다는 '자신의 의견'(84.3%)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고 답했다.
- '진로'는 평생의 과제고 인생의 생각거리다. 희망제작소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진로탐색을 통해 인생의 행복과 안정, 가치와 조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나침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키워드 청소년, 진로교육,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

1.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이 두려운 시대

“공부 잘해야 SKY같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될 수 있지. 그러면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기성세대가 되뇌던 이 말은 청소년들에게는 SKY 혹은 어떤 대학으로든 돌진할 수밖에 없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대학의 졸업식에서 강력했던 마법의 주문은 한 현수막 앞에서 맥없이 풀리고 만다.

‘연대 나오면 뭐해. 백수인데.’¹⁾

2000년 이후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섰고 대졸이상 학력자는 80%가 넘는다. 그러나 15~29세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²⁾. 더 이상 대학이라는 간판으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직단념자³⁾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2016년 지금,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을 세뇌했던 마법 같은 주문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이 두려운 시대’가 찾아왔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더 이상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않고, ‘오늘은 뭐 먹지?’ 못지않게 ‘오늘은 뭐 하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껏 한국의 청소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뭐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흔히 아는 ‘좋은 대학-좋은 직장’의 경로가 한국사회 청소년이 갈 길이고, 할 일이고, 먹고사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경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입시’와 ‘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향해 12년에서 16년 이상을 달려왔으니 시야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뒤다. ‘나’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정립하지도 못하고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고학력청년층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두고서, 젊은이들이 눈만 높아서 취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인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그리지 못하게 하고, 정형화된 성공적인 삶을 따라가도록 만든 우리사회의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에는 ‘방향’이 아닌 입시 또는 취업의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 ‘진로(進路)’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길은 돌아갈 수 있고 힘들지만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이 되더라도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따라 선택한 길은 다시 돌아가기가 쉽다. 즉 회복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이 진로를 고민할 때 ‘대학’보다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확신이 없다면 진학하지 않거나 기다려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그들이 정한 진로의 ‘방향’에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희망제작소가 바라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이다.

1) 2015.02.25., 시사위크, “연세대 나오면 뭐해, 백수인데” 웃픈 청년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44>

2) 2016.06.22., 조선비즈, [리뷰팅 코리아] ⑦ 청년고용률, OECD 평균보다 10%P 낮아... '정규직 청년' 증가해야 성장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4/2015010401049.html

3)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예 구직에 나서지 않는 구직단념자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며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으나 자기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인 <OO실험실>⁴⁾, 청소년에게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획하고 완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내일 (Tomorrow) 속 내-일(My Job)을 상상해 보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는 『진로교육법』이 통과되었다.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진로교육법의 등장은 조금이나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꿈꾸게 한다. 청소년 저마다 다양한 길을 걷고 스스로 새 길을 만들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가능한 현실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2. 진로교육, 그 깊은 뿌리

1) 진로교육, 왜 필요할까?

진로교육은 한 개인의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이 결핍된 채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은 물론, 국가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한다. 진로에 의해 만나는 사람과 사귀는 친구들이 달라지며,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Tolbert, 1974; 김원중, 1984). 특히 이는 인생의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최초로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청소년기에 자신이 타고난 잠재력과 특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의욕, 환경에 알맞은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교육기능 중 하나이지만 청소년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그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입시에 몰입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시 원서접수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눈치작전으로 경쟁률 낮은 학과에 원서를 접수하는 사례는 20세기나 21세기나 별 차이가 없다.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도, 무슨 일에 흥미나 관심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점수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니 대학생활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과 우리의 진로의식이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세계관과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진로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4)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그려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현하는 프로젝트. <OO실험실>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makehope.org/?p=34174>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진로교육지표 조사”.

2) 대한민국 진로교육 역사: 경쟁의 서막

한국의 공교육 시작은 1945년 광복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와 50년대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은 후 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립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 교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때였다. 특히 1950년대는 해방직후 64%에 불과했던 초등학교취학률이 1950년대 말에는 95% 이상 늘어나는 등 교육의 비약적인 양적성장기였다.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교육인구는 학교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교육부, 1997). 이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및 생활지도 등 부분적 진로지도를 시도했던 첫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960년대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다. 군사독재시절, 1960~1969년까지 평균 8.5%의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던 시기로 초등학교졸업생의 반 이상이, 중학교졸업생의 약 35%, 고등학교졸업생의 약 70%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했다(문교부, 문교통계요람, 1963).

이 시기는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인력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인간교육'보다는 '직업인'의 양성에 주력하는 진로교육이 실시되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63년에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보호대상이 성인근로자 혹은 구직자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선택단계 이전의 초·중등학생들의 직업탐색, 자기이해, 직업의식 함양과 같은 포괄적인 진로지도가 펼쳐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진로교육이론'이 막 싹텄던 새싹기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개발과 경제발전의 결과가 축적된 시기일 뿐 아니라,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축적되어온 배움을 향한 대중의 열망과 욕망이 가장 광범위하게 발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경제가 모든 영역을 압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상승했고, 이는 '경제적 욕망의 정치'가 대중 사이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전근대사회가 신분제를 통해 '안정'과 '금욕' 등을 추구했다면, 근대사회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정 하에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한 신분상승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바로 이 시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경쟁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이 국민의 삶과 가치관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수직적인 모델을 성공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을 통한 성장'이란 가치 하에 중·고교입시의 평준화⁸⁾의 등장은 '대학입시'로 경쟁을 집중시켰고, 청소년들은 '경쟁'이 곧 학교생활의 기본문법이 되어버린 확고한 체제에 포섭되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입시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6) 1962~1986년까지 진행된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짜여 추진되었던 경제계획.

7)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제5항의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보충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로 볼 때 '산업교육'이라는 말은 당시의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를 대신했던 말로 볼 수 있을 것이다(홍기형; 이승우, 1975).

8)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 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총 5,000명의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5,000명의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 입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과 다르다. 전자가 바로 고교평준화제도이고, 후자가 고교선발제이다. 고교입시를 위한 과열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두산백과).

그러나 70년대 후반까지도 진로교육은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전혀 관심을 못 받거나 등한시되어 왔고 용어의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김충기, 1996).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그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의 사회문제와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학위주의 진로지도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선 새로운 군사 독재정권은 억압된 체제 하에 아이러니하게도 확대와 개방의 교육정책을 시행했다. 본고사 폐지,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예비고사를 통한 대학입시, 과외전면금지, 대학졸업정원제⁹⁾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얼핏 보면 빈부격차에 따른 과외집중 현상을 규제하고 어려운 본고사가 아닌 예비고사의 실시로 당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이러한 국가의 억압적인 교육정책 속에서 대학을 사회적 지위 획득의 최종선발단계로 보는 고학력 출세지상주의는 그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며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 관련 학계에서는 문제를 직시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다(김충기, 1996).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와 주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개년 동안 '진로교육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1987년~1989년도에는 초·중·고 총 54개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도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87). 이 시기부터 진로지도 대신,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 내용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해, 1990년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진로교육을 도입·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입시 과열 현상은 더욱 치열해졌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1990년도 초·중반에는 시·도 교육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는 등 진로교육이 법적·제도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와 법의 구속력은 제한적이었고, 정부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기도 해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위화감 조성, 입시탈락 청소년문제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던 진로교육 정책이 입시교육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저성장 그리고 진로교육의 암흑기

1999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평생직장이 사라지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교육계에도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바람으로 1998년과 1999년도에만 무려 3만5천여 명 이상의

9) 입학 시에는 학생선별을 하지 않고 졸업 시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 즉, 졸업정원제는 학생선별을 고교졸업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정 이수기간 중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여 배출케 함으로써 대학입시에 따른 치열한 경쟁을 완화시키자는 뜻이 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 실시는 교수요원과 시설 등의 수용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고, 대학과정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졸업정원제가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대로 실시되고는 있지 않으나, 미국처럼 대학진학의 기회를 기본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대학에서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와 유사한 제도라고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대학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되었다가, 제도 운영에서 경직된 대학운영, 중도수료자 구제의 어려움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1990년(의학, 치의학, 한의학과는 1992년) 졸업자까지만 적용되었고 지금은 폐지되었다(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교사가 교직을 떠났고 학생들 사이에도 집단따돌림이 성행하는 등 학교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 ‘교실붕괴’ 또는 ‘학교붕괴’라는 말이 나돌면서 공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¹⁰⁾

이 시기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진로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시기였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와 고용제도의 유연성, 청년 단축 등 시시각각으로 근로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으로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고, 지식반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며 직업세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실제로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의 대한민국 진로교육은 암흑기와도 같았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기존의 ‘진로교육부’도 해체 및 축소되었고 인력과 예산의 감축으로 진로교육은 한계를 맞았다. 중앙단위에서 진로지도정책을 수립·운영할 구심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학교의 진로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할 시점에 진로교육은 일부교사들의 사명감에 의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4) 변해야 한다: 진로교육의 재정립기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청년실업률 및 취업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침체된 진로교육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대학진학 후 초기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지면서 아예 실패하는 비율도 높아져 대학졸업을 유예하는 등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야기된 학업중단, 학교 내 왕따, 공부 부적응 등의 현상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현행 공교육체계에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과도한 ‘점수’경쟁은 주요 교과목 중심 및 지식전달수업으로 치달아 청소년의 체력저하와 행복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소년의 창의력 등 미래지향적 능력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임언, 2012).

또한, 다양화·다변화(외국인, 귀화, 다문화가정, 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자)되고 있는 초중등단계 학생구성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인원 감소와 함께 한국교육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화된 교육수요는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변화된 형태의 접근을 요구한다. 특화된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는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인문·자연계열 외에 예체능계열 혹은 직업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회변화는 복잡하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직업세계의 변동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진로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사회적 공감대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진로교육 강화 움직임 또한 본격화되어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표어로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법 제정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제정이 가지는 큰 의미는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변화와 개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단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체,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 영역과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진미석, 2015). 즉 『진로교육법』을 학교교육 전반의 개선을 가져올

10) 1999.04.07, 동아일보, 위기의 교육현장(下) 떨어진 명예...떠나는 선생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40700209123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04-07&officeId=00020&pageNo=23&printNo=24163&publishType=00010>

수 있는 종합적인 변화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5)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엄기호 · 하지현은 저서 『공부 중독: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2015)에서 이렇게 말한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배우는지 모르겠고, 배웠기는 배웠는데 할 줄 아는 건 없다. 배워서 알면 그 아는 것을 익혀서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드는 익힘의 과정은 공부에서 실종된 지 오래다. (중략) 이런 공부의 과정은 삶의 무능력자들만 체계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똑똑하되 멍청하며, 언변은 좋되 무능하다. 시험 문제는 잘 풀되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형편없으며, 남을 품평하는 데는 날카로운 날을 세우되 자신을 성찰하는 데는 무디기 짝이 없다. 하나를 배워 다른 하나에 적용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가 내가 배운 하나와 다른 면 멘붕하고 열폭한다. 그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수록 무능해지고, 배울수록 화만 내는 처지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 '공부'한다. 공부만 한 것이 문제의 근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는 격이다."

이런 현실 속 청년과 청소년이 가진 불안감의 수위는 해방 이후 그 어떤 세대보다 높다. 청소년들은 제도교육 안에서 자아를 잃고 흥미와 재능을 포기하며 학교와 배움 자체를 포기한다. 학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운(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임금은 물론, 사회에 대한 참여와 만족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불투명한 다음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여기에 있다.

3. 포기와 시도 앞에 서성이는 청소년

1) 청소년들의 일상 · 비일상

춧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던 2008년, 광장에 모였던 청소년들은 어느새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학교로, 학원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반복되는 삶으로 들어가 버렸다. '입시'라는 일상과 '사회참여'라는 비일상의 경계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일상이라는 선택지를 향한 것이다. 지난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은 청소년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 동네의 구석구석으로, 어려운 이웃의 현실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교육의 틀을 벗어나 청소년들 스스로 바로 자신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자신이 꿈꾸고 욕망하는 것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146일이란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사회를 그려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현하였다. 그 시간의 끝에는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성공의 웃음도 있었고, 기획과 진행과정에서 맞본 한계와 반성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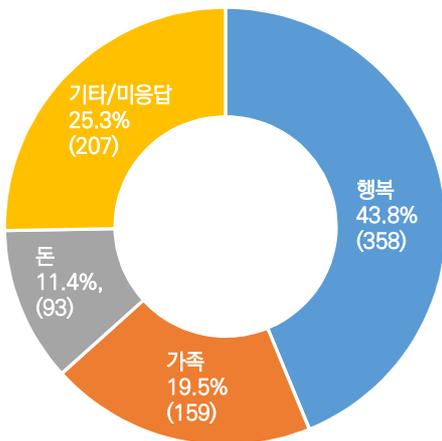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삶'에 대한 성찰과 세계관의 확장, 자신감을 맛보는 경험의 감촉이다. 장래희망을 정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다른 이들의 이목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한 청소년은, <oo실험실>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았고, 지금까

지 자신이 추구했던 목표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¹¹⁾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에 대해 단 한 번도 진득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라는 일상의 굴레에만 빠져있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이 사회참여라는 비일상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스스로 만들어갈 우리사회를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것이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청소년들에게 비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내-일상상프로젝트>¹²⁾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인프라가 빈약하다고 판단, 적절한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기관-전주 YMCA,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지난 6월, 전주와 완주에서 <상상학교>가 진행되었다.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을 빌려 학교밖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총 5회에 걸쳐 8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상학교는 '강연'과 '휴먼라이브러리'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미래사회에 일자리의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과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었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는 총 5회 동안 22명의 '사람책'이 청소년들에게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휴먼라이브러리와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진행했다. 사람책의 삶을 중심으로 진로와 인생 찾기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자유롭게 질문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후 청소년들의 현재 관심사를 알아보고 진로교육 및 상상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기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본 장에서는 기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소년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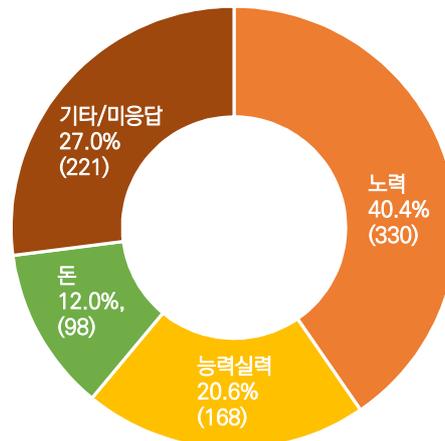
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Q.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Q. 인생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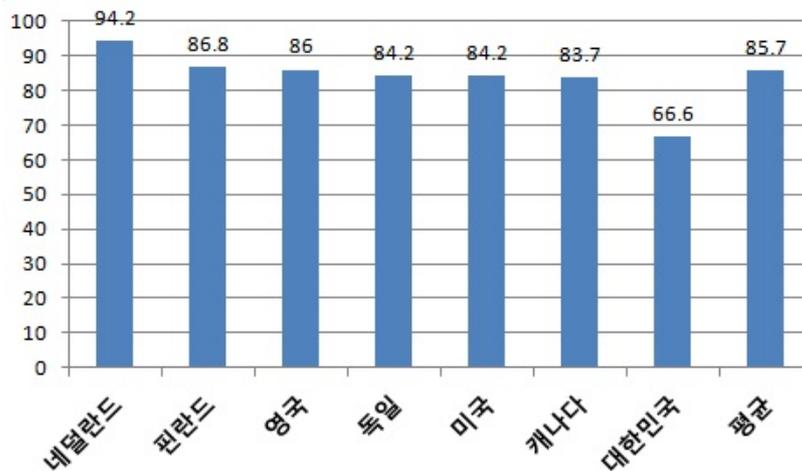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11) 우성희·허보나(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6-04, p.112.

12)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2016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청소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성공요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3.8%의 청소년이 ‘행복’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가족’(19.5%)을 선택했다. 두 질문 모두 ‘돈’이 3위를 차지 하긴 했지만, 돈을 선택한 이들의 비중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인생의 성공요인으로 40.4%의 청소년들이 ‘노력’을 꼽은 것도 의외의 결과였다.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이유로 ‘노오력’¹³⁾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장난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성공요인으로 ‘노력’을 선택한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자료: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염유식 외(2013).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¹⁴⁾와 본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볼 때,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노력’은 어떤 것인지, 나아가 우리사회와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가치와 성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6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13세~24세 청소년은 직업선택 시 적성과 흥미, 수입, 안정성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은 것은 1위가 국가기관, 2위가 대기업, 3위가 공기업이었다. 자영업과 전문직이 그 뒤를 이었다.¹⁵⁾ 이에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왜 청소년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호하는지를 물어보았고, 50.6%의 청소년들로부터 ‘안정적인 직업이라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직업선택 요인으로 ‘안정성’은 13~19세 청소년들에게서 19.9%의 비율로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20~24세의 청소년들에 비해 9%p 이상 높은 37%의 비율로 ‘적성과 흥미’를 직업선택의 1순위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과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틀에 박힌 직업영역이었다.

13)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하라는 말로 사회가 혼란하니 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말.

14) 염유식(2016),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15) 2016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Q. 2016년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 공무원, 2위 대기업 회사원, 3위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왜 이런 직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명)	(%)
1위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413	50.6
2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254	31.1
3위	사회(가족, 친구 등)가 인정해주어서	33	4.0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희망제작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 스스로도 해당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이나 사회의 인정보다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이라는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보다 앞서고, '안정'이라는 선택이 '돈'이라는 선택보다 앞서고 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적 성장신화는 이미 저성장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주'가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되어버린 오늘날, 그 꿈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행복과 안정'이라면, 친구를 이기고 올라서 높은 곳을 지향해 온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다양하게 변화할 진로교육의 현실을 앞두고 현재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질문해 보았다.

Q.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답변	(명)	(%)
1위	장래희망	449	55.0
2위	직업	190	23.3
3위	고등학교 · 대학교 진학	95	11.6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총 817 명의 청소년 중 55%가 '진로'에 대해 '장래희망'이라고 답변했다. 23.3%는 진로를 직업이라고 답변했고, 상급학교 진학을 진로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11.6%를 차지했다. 나아가 한자어 그대로 '나아갈 길'이라고 적어준 이들도 몇 명 있었으며, '자신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해석한 이도 있었다. 종합해보면, '진로'는 각자의 길을 나아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 꿈꾸며, 열정이 동반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에는 25%의 청소년이 무응답 내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 답변은 9.3%에 해당되는 '일

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분위기가 신경 쓰인다'는 답변과 함께 해석할 수 있다. 과연 '이 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의식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현재의 청소년들은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꿈을 이루기 커녕 꿈꾸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속 한국사회 청소년의 모습이다. 그러나 75%에 해당하는 609명의 청소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같은 틀로 묶어지지 않는 각자의 언어로-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사'와 같은-꿈을 적었다.

Q.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답변	(명)	(%)
1위	내 의견이 중요하다	689	84.3
2위	내 주변 어른(가족, 선생님 등)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62	7.6
3위	내 주변과 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적, 환경 등 중요)	29	3.5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보다 주목할 점은 '진로 결정과 준비'에 대한 의견이다. '진로를 이야기하거나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84.3%)고 말하면서도,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47.4%)고 답하는 것이 청소년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규격화된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과 맞서고 싶어 하면서도 삶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과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말해준다.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분위기가 신경 쓰인다'(9.3%)는 답변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직업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들과 직업세계 '밖'에서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똑같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좋은 직업과 좋지 않은 직업을 나누고, 눈치보고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다.

Q.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답변	(명)	(%)
1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387	47.4
2위	시간이 부족하다	112	13.7
3위	일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분위기가 신경 쓰인다	76	9.3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하는 고려사항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혹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나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청소년

년들, 쉽사리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도 못하는 (2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사회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떠한지, 앞으로 ‘나’의 역량으로 혹은 주위 환경의 도움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또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멋들어진 꿈을 꾸는 법도,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상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읽은 22명의 사람책은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범위에 걸쳐있거나 훨씬 더 밖에 있는 이 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읽는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보통의 다른 삶’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상상학교가 끝난 후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아직 어떤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조사해 보고 알아봐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중3_사회적기업가 사람책 독자)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공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중3_소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사람책 독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안서서 불안한데 강연을 듣고 나니 내게 용기가 좀 생긴 것 같다”(중3, 지역대안문화공동체 청년기획자 사람책 독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새롭게 알아볼 것 같다” (중3_학교밖학교 청년교장 사람책 독자)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에 살아갈 우리는 항상 그 불확실성 때문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번 상상학교를 통해 꼭 공무원, 의사 같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맞춰 살아가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중3_학교밖학교 청년교장 사람책 독자)

4. ‘나’를 알고 나아가는 길을 위해

희망제작소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저성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역인재 유출, 고령화-가 배경이 되었다. 청소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혹은 ‘안정’이라는 가치가 앞으로의 우리사회 변화에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된다면, 청소년들 스스로 각자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일’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고 싶은 〈진로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전주 · 완주 지역 중·고생 총 817명 대상)에 32.3%의 학생이 ‘지역에 있는 일터 체험/인턴십’을 원했다. 한편,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청소년이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23.9%)를 보였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이 4명 중 1명꼴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내일에 대한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법』의 힘을 빌려 학교안과 밖,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를 동반하며 행해져야 할 때와 마주했음을 증명한다.

Q.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고 싶은 '진로교육'은 무엇인가?

	답변	(명)	(%)
1위	지역에 있는 일터(협동조합, 어린이집, 카페, 동물병원, 공방 등) 체험 혹은 인턴십	264	32.3
2위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195	23.9
3위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견학 또는 인턴십	164	20.1
4위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적정기술, 농업, 목공, 전기 등) 교육	107	13.1

대상: 전주 및 완주 지역 중·고생 817명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은 중요하다.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응원한다. 내 지역을 지키고 가꿔나가겠다는 꿈도 소중하다. 이렇듯 각기 다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이다. 지역의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재, 희망제작소는 지역으로 내려가 새롭게 뿌리내린 이들과 자신의 지역에 깊게 뿌리 박고 살아온 이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내일'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떼려고 한다. 서울이든 전주든, 완주든 각 지역에는 각기 나름의 일터가 있고 삶이 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전주와 완주 지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서 경험을 쌓아보기를 희망했고,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내일의 나는 어떤 내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나를 알아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행복이란, 안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의 가치는, 지켜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본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2017년 1월에 <희망리포트>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프로젝트 내용이 실릴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 김원중 (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기 (199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배영사
- 교육부 (1997), 「교육 50년사」
- 문교부 (1963), 「문교통계요람」
- 엄기호 · 하지현 (2015), 「공부 중독: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위고
- 염유식 외 (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 염유식 외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 우성희 · 허보나 (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결과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4, 희망제작소
- 이상준 · 정윤경 (2009),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2012), “중·고등학생의 적성 및 학습시간 변화”, KRIVET Issue Brief 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 외 (1989), 「진로교육연구사업 보고서(1987-1989)」, 한국교육개발원
- 진미석 (2015), “진로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The HRD Review, 2015년 7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영표 외 (1987), 「진로교육체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청소년 통계」
- 홍기형 · 이승우 (1976), 「진로지도」, 교육출판사
- Tolbert (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이너니즈 캠프
SDS
퇴근후
Let's
HMC
사회혁신센터
Social Innovation
Camp 36

문화예술교육 CO-UP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더스
리얼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HMC
지역공동체
모용진용기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오픈포
다자인
재발견
서로의
재구성

좋은
합천포럼
good fund raiser
희망자리
커뮤니티
사회적
Therefore I am
HOPE
금융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집단지성프로젝트
정치경제
장은변화
에코라이프, 나눔
1000명
희망탐사대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활동
good fund raiser 포터 캠프

웃는마을명대아
문드라운
시민문화예술을
HOPE
목민관
학교

공공
리더
00000
감사의식탁
social innovation
나는 희망한다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
예술들을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 예술
예술들을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시민문화 예술
예술들을
아름다운 시니어 만들기

www.makehope.org

사회적기업인합포럼 도시재생
마을이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합동조합
크라우드펀딩
리포트
윌키투크
@서울
공유
경제
기업가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U3A
서울
행복설계아카데미

천개의
거버넌스
시선
확교
학 교
시민교육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ANIS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아시아 사회혁신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
어린이 함께
두번째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99% fund raiser
우애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메니페스토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